

# 윤성원 차관, “폭염 속 근로자 안전 최우선으로” 강조

## - 23일 천안시 건설현장 찾아 고강도 방역·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당부 -

-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23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실태 및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윤 차관은 코로나-19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, “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

  - 이를 위하여, 현장 책임자는 “기본수칙인 물, 그늘, 휴식 제공과 함께 한낮에는 실외작업을 최소화해서 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길 바란다”면서,
  - 아울러, “근로자들은 폭염 속 안전장비와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 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주실 것”을 강조했다.

- 이어서 윤 차관은 “코로나-19 4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, 경각심을 최고로 높여 힘을 모아야 할 때”라면서,
  - “근로자는 업무시간 외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, 현장책임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했다.
  - 또한, 현장이 위치한 천안시 등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“일상 속 감염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, 방역의 생활화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”하다고 거듭 당부했다.

- 또한, 타워크레인 작업 중 “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관리자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”하다면서,
- 특히, “올해 전국 공공·민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연말이면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3,500대에 이르는 만큼,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주문했다.

2021. 7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